

데뷔 첫 사극영화 '기방도령' 도전 정소민

“DJ·유튜버·예능에 체력전 사극영화까지… 에너지? 펄펄 넘쳐요”

? 정소민 ▲1989년 3월16일생 ▲2008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와 수석입학, 휴학 ▲2010년 SBS 드라마 '나쁜 남자'로 데뷔 ▲2014년 KBS 2TV '빅맨', 영화 '스물' ▲2016년 영화 '아빠는 딸' ▲2017년 KBS 2TV 주말극 '아버지가 이상해',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영화 '골든슬럼버' ▲2018년 tvN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등

사극 영화와 라디오 DJ, 예능프로그램에 이어 유튜브에도 도전한 연기자 정소민이 “모든 것에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열정을 내비쳤다.

사진제공 | 판씨네마

“진지하고 단아해 보이지만 내심 할 말은 다 하잖아요. 조용하게 정곡을 찌르기도 하고요. 제가 닮고 싶은 부분이에요.”

연기자 정소민(30)은 데뷔하고 9년 만에 처음 도전한 사극을 통해 조선시대 양반가의 인물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했다. 10일 개봉하는 영화 '기방도령'(감독 남대중·제작 브레인사위)을 통해서다. 그동안 사극에서 익숙하게 봐 온, 시대에 순응하는 여성 캐릭터가 아니라 당찬 면모를 지닌 인물을 연기한 정소민은 “실제로 제가 지향하는 모습이 영화 속 캐릭터에 담겼다”며 반겼다.

'기방도령' 개봉을 앞둔 4일 오전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소민은 “작품을 시작할 때마다 나에게 어떤 울림을 주느냐에 따라 임하는 각오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해와 일정을 위해 비행기 안에서 읽은 '기방도령'의 시나리오에는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인물이 주는 울림”이었다.

●진지한 성격과 달리 있던 코미디 영화 주연
제목에서부터 이야기나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나는 '기방도령'은 '폐업' 위기에 처

한 조선의 기방 연풍각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코미디다. 기방에서 나고 자란 '꽃도령' 허색(이준호)은 자신의 용모를 이용해 남자 기생이 되고, 여인들을 마음껏 사로잡는 와중에 양반가의 자제 해원(정소민)을 보고 첫 눈에 반한다.

'기방도령'은 정소민에게 세 번째 코미디 영화다. 2015년 강하늘, 김우빈과 영화 '스물'을 함께하면서 코미디를 경험하고 3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그는 2017년 '아빠는 딸'을 통해 또 한번 코미디를 맞았다. 이광수와 함께 한 KBS 2TV 드라마 '마음의 소리'도 코미디 장르다. 실제 성격은 진지한 편이지만 유독 웃기는 코미디와 인연이 잦다.

“낮을 가리는 성격이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뽕’이 금방 허물어져요. 이번 영화에서 줄곧 고나희(해원의 몸종 알선 역)와 붙어 지내잖아요. 영화 찍을 때 10살이던 나희가 지금 11살인데, 요즘 저와 가장 친한 ‘절친’이에요. 하하! 얼마 전에도 이태원에서 따로 만났어요. 말이 정말 잘 통해요.”

고나희처럼 예외도 있지만 정소민은 주로 포레 연기자들과 호흡을 맞춰왔다. '기

영화 속 당찬 캐릭터, 닮고 싶은 모습
진지한 편인데 코미디 영화는 3번째
매일 라디오DJ…연기와는 다른 매력
체구는 작지만 '깡' 하나는 끝내줘요



방도령'의 상대역 이준호와 동갑내기 친구다. 실력 좋은 상대를 만나면 질투를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정소민은 “경쟁심보다 좋은 자극을 받는다”고 했다.

“준호는 제가 지금껏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바쁜 사람이에요.(웃음) ‘스물’을 같이 찍을 때도 집에서 촬영장으로 온 적이 거의 없어요. 늘 해와 일정이 많아서 공항에서 곧장 오곤 했고, 이번에도 비슷했어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늘 200%씩 능력을 발휘하면서 소홀하지 않아요. 본받고 싶은 모습이지요.”

현재 이준호는 군 복무 중이다. 영화 개

봉을 앞두고 5월 입대했다. 때문에 '기방도령'을 알리는 책임은 정소민에 집중돼 있다. ‘소멸될 듯’ 가려진 체구로 가능할까 싶지만 에너지가 넘친다. 남들은 사극 한 편 찍으면 체력적인 한계를 호소하지만 그는 “지금 다시 사극을 시작하라고 하면, 바로 임하고 싶을 만큼 사극에 푹 빠졌다”고 했다.

●라디오 진행부터 유튜브, 예능 도전까지

정소민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두 시간 동안 SBS 파워 FM '정소민의 영스트리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작해 8개월째 DJ로 살아가고 있다. 밤늦은 시간에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할 때도 있어 연기자라 라디오 DJ를 맡으려면 상당한 각오나 애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데뷔 초 신인 때 라디오 부스에 들어가 느꼈던 편안한 느낌이 오랫동안 남았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생활은 고등학교 이후론 처음인데 신기하게도 묘한 안정감이 생겨요. 드라마 찍을 땐 촬영장만 바쁘게 오가지만 끝나면 사실 ‘백수’가 되잖아요. 그럴 때 출퇴근하는 일상

이 주는 안정감이랄까. 사연 보내는 분들과 매일 소통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요.”

좀 더 들여다보면 정소민은 ‘공사다망한’ 연기자다. 꾸준한 연기 활동과 라디오 진행으로 바쁜 와중에 SBS가 방송을 앞둔 새 예능프로그램 ‘리틀 포레스트’에도 합류했다. 숲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환경을 마련해 함께 대화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이승기·이서진과 호흡을 맞춘다. 평소 “휴대전화를 보거나 게임만 하지 않는, 자연과 함께 지내는 욕아”에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자신의 지향과 프로그램의 성격이 맞아 출연을 결정했다.

유튜브도 한다. 직접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올리는 방식으로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어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웃음) 유튜브는 팬들이 원하기도 했고, 또 제가 영상 촬영을 워낙 좋아해요. 너무 많이 찍어서 정리가 안 될 정도거든요. 처음엔 8살 된 강아지를 주로 찍으면서 시작했어요. 촬영도, 편집도 실력은 부족하지만 하면서 배워간다는 마음이에요. 앞으로 나아질 거예요.”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MC딩동, 지방생 폭행 혐의 입건



MC 딩동

방송인 MC딩동(허용은·40)이 MC 지방생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9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이 지방생은 “MC딩동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을 당했다”며 최근 고소장을 접수했다. MC딩동은 “폭행과 폭언은 사실이 아니다”며 “그가 MC 교육을 노동의 대가라며 3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경찰 조사를 받은 그는 지방생을 공갈·협박죄로 맞고소했다. MC딩동은 KBS 2TV ‘불후의 명곡’ 등 본 녹화의 사전 MC로 활동하고 있다.

선우선·이수민 감독, 14일 결혼회전



선우선과 이수민

연기자 선우선(44)과 이수민(33) 무술감독이 14일 결혼식에 앞서 직접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예식을 올리며 이날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선우선의 소속사 토미상회 측은 지난달 “이들이 1년여 교제 끝에 결혼한다”고 알린 바 있다. 선우선은 2003년 영화 ‘조폭마누라2’로 데뷔해 드라마 ‘내조의 여왕’ ‘백년의 유산’ ‘사생결단 로맨스’ 등에 출연했다. 이수민 감독은 정두홍 무술감독이 이끄는 서울액션스쿨 소속으로, 드라마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등에 참여했다.

‘녹두꽃’ 대본집 총3권으로 출간



최무성

현재 방송 중인 SBS 드라마 ‘녹두꽃’의 대본집이 출간된다. 총 3권으로 구성된 대본집은 각 권 8부 분량의 ‘작가관 무삭제’ 대본을 담는다. ‘녹두꽃’은 정현민 작가가 대본을 썼다. 또 대본집에는 드라마의 기획의도와 시놉시스, 제작방향, 등장인물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드라마 ‘녹두꽃’은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최초의 사극으로, 민초들과 무능한 기득권 세력 등 개성 강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주목받았다. 배우 조정석, 윤시윤, 최무성 등이 주연하는 드라마로 13일 막을 내린다.

가수 케이월, 4년만에 소극장 공연



케이월

9월1일까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에서 ‘이대로’란 제목으로 8회 공연을 벌인다. 공연 타이틀은 ‘케이월의 모습’으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시간으로 꾸미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케이월은 히트곡을 포함해 숨은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더보이즈’ 美폭스채널 토크쇼 출연



더보이즈

아이돌그룹 더보이즈가 미국 뉴욕의 아침을 뜨겁게 달궜다. 더보이즈는 9일(한국시간) 미국 폭스 채널의 토크쇼인 ‘굿데이 뉴욕’에 출연해 ‘노 에어’ 무대를 선보였다. 12명의 멤버들 가운데 캐나다와 미국 출신인 케빈, 제이콥, 에릭이 영어로 그룹을 소개했다. 이날 오후에는 미국 야후의 SNS 서비스인 탐블러와 함께 온라인 이벤트에도 참여했다.